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시점 2023. 10. 24.(화) 06:00 < 10.24.(화) 석간 > 배포 2023. 10. 23.(월)

차량용 반도체 상생 협력을 위한 교류의 장 마련

- 「'23년 차량용 반도체 수요-공급 기업 기술교류회」 열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는 10월 24일(화) 한국컨퍼런스센터(서울)에서 「차량용 반도체 수요-공급 기업 간 기술교류회」를 개최하여 자동차부품 업계, 반도체설계 전문업체(팹리스) 등 반도체 업계가 참석한 가운데, 차량용 반도체 경쟁력 강화 방안과 상생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번 교류회는 자동차가 자율주행, 초연결화, 전동화 등 미래 차로 전환되면서 차량용 반도체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고, 수요-공급 기업 간 교류와 협력으로 차량용 반도체 공급망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개최되었다.

교류회는 한국자율주행산업협회와 한국팹리스산업협회 주관으로, 수요기업에 현대차, KG모빌리티, 현대모비스, LG전자, 모트렉스 등 5개 기업이, 공급 기업에 텔레칩스, 라닉스 등 25여 개 기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공급 기업인 라닉스는 차량용 반도체는 일반 반도체 대비 동작 온도, 전압, 수명 등 고도의 무결점이 요구되어 전용 생산설비(라인)가 필수이며,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수익성 창출이 어려워 신규투자가 쉽지 않은 애로를 제기했다.

수요기업인 현대모비스는 미래 차 전환 추세(트렌드)에 따라 차량용 반도체 시장도 기존 반도체위탁생산기업(파운드리) 중심의 '제조' 생태계에서, 수요기업과 반도체설계 전문업체(팹리스) 간 협업으로 설계 기반의 '개발' 중심 생태계로 범위를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박동일 산업부 제조산업정책관은 "우리 자동차와 반도체 산업이 가진 역량을 결집하여 협력한다면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동시에 차량용 반도체 분야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정부도 차량용 반도체 연구개발에서 성능평가, 사업화에 이르는 과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설비투자, 인력양성 등 필요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제조산업정책관 미래자동차산업과	책임자	(代)과 장	최보선 (044-203-4390)
		담당자	사무관	정종호 (044-203-4396)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붙임 『23년 차량용 반도체 기술교류회』 행사 개요

□ 추진배경 : 미래차 핵심부품인 차량용 반도체의 공급망 안정화 및 상생협력을 위해 수요기업과 공급기업간 교류의 장 마련

□ 일 시 : 2023. 10. 24 (화), 10:00 ~ 17:00

□ 장 소 : 서울 한국컨퍼런스센터 B2층

□ 주 최 : 한국자율주행산업협회, 한국팹리스산업협회

□ 후 원 : 산업통상자원부

□ 참석자 : 산업부(제조산업정책관), 한국자율주행산업협회장, 한국팹리스산업협회장, 산·학·연 대표자 및 관계자

□ 행사내용(안)

시간		주요내용	비고
10:00~10:20	('05)	▪ 행사안내	-
	('15)	▪ 개회사 및 환영사	한국자율주행산업협회, 한국팹리스산업협회
		▪ 축사	산업부(제조산업정책관)
10:20~10:30	('10)	▪ 차 반도체 R&D 등 정책소개	-
10:35~11:40	('65)	▪ 차 반도체 R&D 정책 관련 간담회	-
12:00~13:00	('60)	▪ (수요기업) 기술 수요 및 협력방안 소개	현대모비스/LG전자/모트렉스 (3개사)
14:30~17:00	('150)	▪ 차반도체 기술 교류회	수요기업, 공급기업